

귀 국 보 고 서

파견대학	셰필드대학교
파견기간	18. 09 . 24 . ~ 19. 02 . 01 .
프로그램	학기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유학생 보험은 담당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곳(한화)에서 신청했습니다. 저는 U-02로 신청했는데, 그냥 본인이 잘 생각해보고 등급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해주신 곳 이외에 다른 곳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영국 공항에 도착해서 학생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입학허가서, 충북대학교 재학 증명서, 공항 레터, 항공권 등등 여러가지 준비해서 갔었는데, 간단하게 입학허가서와 공항 레터 정도보고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항공권은 에티하드 (아부다비 경유) 이용해서 갔고, 저는 개강일 일주일 전에 한국에서 출발해서 아부다비 경유하면서 여행하고 들어갔습니다. 에티하드는 타임오버로 해서 경유할 경우 연계된 호텔에서 짤 가격으로 묵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항공권 예매할 때 출발 전까지 티켓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저는 이름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출국 바로 전에 영국에서 입국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각서를 쓰고 인천에서 출발했고, 아부다비에 도착해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표를 다시 재발급 받고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가적으로 1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티하드 항공사는 기내 수화물 무게도 꼼꼼하게 체크하니 무게 잘 체크하셔서 당황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저는 공부할 책, 옷, 한국 음식 등등 진짜 많이 챙겨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책을 따로 더 가져가는 것보단, 학교에서 나눠준 책과 프린트물을 복습하는 것을 더 추천 드립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복습하는 걸로도 저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음식은 고추장, 라면 이런 것들 이것저것 챙겨갔었는데, 중국 마트에서 라면 종류는 엄청 많이 팔고 있고, 기숙사 근처 테스코에서도 신라면, 불닭볶음면, 김치라면 다 팔아서 라면은 안사가도 될 거 같습니다. 굳이 추천하자면 다시다 가져가서 국 같은 거 먹을 때 잘 썼고, 햇반은 밥하기 귀찮을 때 먹기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이시면 폼 클렌징 넉넉하게 챙겨서 가시길 추천 드립니다. 샴푸, 린스 등등 다른 것 들은 영국에서 다 해결 가능한데, 영국에서 산 폼 클렌징은 거품도 안 만들어 지고, 세정력이 부족 했습니다. 석회수 물이라 얼굴이 너무 건조하고, 피부 관리가 어려웠는데, 마스크팩 공방면세점에서 30+30 싸게 파는 거 사가서 한 학기 내내 유용하게 썼습니다.

전기장판 가져가서 잘 썼고, 이불커버 가져가면 좋을 거 같아요. 영국에서 살 수 있긴 한데 비싸고 돈 아까워서 안에 이불만 사고, 이불커버없이 쓰다가 버리고 왔습니다.

라면 같은 것들 빼시고도 수화물 무게에 여유가 있으시면, 조그만 청소기 가져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기숙사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있어서 진짜 더럽고 먼지도 많은데, 잘 티가 안 나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기는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층별로 돈 모아서 청소기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층은 청소기 구입을 안 해서 물티슈로 청소하면서 지냈었습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영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교환학생을 시작해서, 처음 수업을 들을 때에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는데, 선생님들이 정확한 발음과 적당한 속도로 수업해 주셔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외식물가는 한국보다 조금 비싸거나 비슷한 정도인데,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기대보단 맛도 괜찮았습니다. 중국식당을 제일 많이 갔었는데, '누들인' 추천합니다.

식재료 물가는 정말 저렴한 편이라, 저희는 플랫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고등어조림, 된장찌개, 삼겹살, 파스타, 스테이크, 규동, 돈까스 등등 식재료가 싸서 밖에서 먹는 것 보다 저렴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별 이유없이 셰필드를 선택해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정말 후회 없는 한학기였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무척 친절하다는 점,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셰필드 대학교에는 한국어학과가 있어서, 동아리 같은 프로그램들이 잘 되있었고, 외국인 친구들을 빨리 친해져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영국에 도착하면 알렉스 선생님이 공항에서 학교까지 픽업 오셨습니다. 따로 여행할 때에는 트램을 타고 기차역으로 이동한 뒤에 맨체스터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강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고, 첫 시간에 문법, 쓰기, 말하기 시험을 보는데 그걸로 반편성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 비율이 너무 많아서 각 반에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를 거의 못하는 단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반인 UE07반에서 공부했었고, 한국인, 중국인, 대만인, 아랍인, 일본인 이렇게 있었는데 한국인 비율은 반절정도 됐었습니다. (저희 반이 외국인 비율이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반절 정도였습니다.) 기초가 많이 부족한 반이어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완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고, 조별로 말하기 연습을 가장 많이 연습했습니다. 중국과 아랍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의 발음을 듣고 연습하면서, 듣기 실력이 더 빨리 향상된 것 같습니다. 같은 또래였던 일본인 친구들과 많이 친해져서, 쉬는 시간에도 한국말 사용은 거의 안하고 같이 영어로 이야기했던 점도 많이 영어공부 하는 것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영어로 마피아 게임을 하거나, 같이 자기 나라 소개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쉼어룸 등)

한국인들끼리 한 건물에서 살았는데, 학교가 끝난 후에는 한국인들과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친구들의 경우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교가 끝난 후에도 영어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 영어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을 편하게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를 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던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은 초대해서 한국 음식도 대접하고, 쉼필드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5. 교내·외 활동: 교외활동은 코리아소사이어티에 나가서,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진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아직까지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단순한 언어교환의 목적이 아닌, 소중한 친구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애플 땀 다이어 근처에 NHS에 가서 무료로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진료받을 수 있어요.

테스코 근처에 시민 문화회관이 있는데, 헬스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유로운 한학기를 보내시게 될 텐데, 한달에 23파운드로 건강한 학교생활 하세요. famous grous 위스키 정말 추천합니다. 진저에일과 섞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학기 중에 플랏 사람들과 아이슬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국제면허 있는 사람이 있어서 렌트해서 저렴하게 다녀왔는데, 아이슬란드 여행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미리 국제면허 준비 해오시면 더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라군에 가실 분들은 한국에서 예쁜 수영복 준비해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이슬란드는 물가가 매우 비싸서, 저희는 플랏에 있는 밥솥과 쌀을 챙겨갔어요. 도시락통과 라면도 챙겨갔습니다. 도시락으로 점심, 저녁 모두 해결해서 식비는 많이 안들었어요. 아이슬란드는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매력적인 곳이니 꼭!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페인인 소매치기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학기중에 일본인 친구가 바르셀로나 여행 중에 여권을 포함한 짐을 도난당해서 3일동안 학교에 못 돌아온 적이 있어요.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영어를 배운다는 것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실력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소중한 시간들 최선을 다해서 지내다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전혀 흥미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영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한 학기였거든요.

하지만 교환학생 기간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닌 연습하는 시간인 것이 더 정확한 거 같아요. 비록 저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환학생을 시작해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지만, 앞으로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기전에 조금이라도 영어를 공부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훨씬 더 풍요롭고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행복한 교환학생 기간을 보내고 오시길 응원합니다 !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